

<경 북>

# 약초 특산단지로 변한 양반촌

지 도 교 수 : 진갑득(영남대학교대학원장)

새마을지도자 : 이상순(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1동)

## 1. 마을현황

대구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40km지점에 성주군청이 위치하며 여기서 북쪽으로 약 8km 올라 가면 초전면 사무소가 있다. 이곳으로부터 다시 산길을 따라 6km정도 들어가면 5개의 자연부락이 백암산 줄기의 남쪽 기슭에 산재하고 있는 월곡 1동 마을이 보인다. 행정상의 명칭은 월곡 1동이지만 속칭 흙실이란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하루에 한번 뿐인 대구행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이 마을의 차량통행이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400년 전에 정착한 벽진 李氏가 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미만이 타성(他姓)으로 구성되어 모든 의결권은 벽진 李氏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 양반기풍이 남아서 좀처럼 새마을 운동과 같은 혁신운동이 이 마을에 젖어들 수가 없었다. 다른 주위의 부락이 잘살게 되어 가도 재래식 영농법에 양반만 찾던 이 마을도 차츰 변모할 기미가 보여지자 이 마을 출신의 초전면장이 앞장서서 새마을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으나 고루한 사상에 젖어 온 이곳을 고치기엔 너무나 힘이 모자랐다. 새마을운동으로 배분해 준 시멘트가 그대로 다른 마을로 이전되어 간 것은 성주군내에서는 이 마을 뿐일 정도로 새마을운동이 늦게 시작된 곳이었다. 몇 사람의 새마을지도자가 포기를 하고 물러선 다음 경북새마을기술봉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교수의 지도가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기술지도결

연은 공짜로 물건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을사람들은 교수들의 잦은 출입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보태어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드디어 불신하는 형편으로까지 번져나갔다. 76년초부터 마을의 구조와 낙후한 이유를 찾기 위하여 여러 면으로 조사분석만을 계속했다. 이 마을의 가구는 농가가 96.5%로 55호를 차지하고 비농가는 단지 2호 뿐이면서 재래식 영농법을 계승해 나가고 있었다. 농경지는 호당 0.6ha로 수리안전답이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리불완전 내지 천수답인 형편이었다. 밭은 호당 약 0.4ha이었으나 상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급자족을 위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이 마을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지는 잡목으로 덮여 있었으며 산지 이용에 대한 관심은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2년간의 지도 결과 지금은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목유형도 달라졌고 주택을 비롯한 환경 개선도 많이 진전되었으며 비옥우를 비롯한 가축의 사양과 백암산 기슭을 개간한 포도원이 생겼으며 약초재배지의 확대로 동민들은 한국 굴지의 마을 육성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 2. 낙후원인 조사

이 마을 면적의 대부분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지는 거의 소나무 및 잡목으로 덮여 있고 백암산이 높아 일조시간이 짧은 것이 하나의 큰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기온이 낮고 첫서리가 빨리오므로 작물생육기간이 짧은 지형상의 애로가 마을의 발전에 큰 장벽이 되어 있었다. 두번

제 원인은 마을의 노동력이 크게 부족되었다. 57호 가구 중 60세 이상의 노부부만의 가정이 18호에 여자 혼자로서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와 살고 있는 집이 5호이며 공무원 3호로 실제 새마을사업이나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가구수는 30호 안팎이었다. 양반이란 자부심과 뿌리깊은 한문학의 영향으로 교육열은 대단해서 끼니는 굶어도 자녀만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전통이 있어 새마을운동이란 말이 나오기 이전만 해도 군내에서 대학생이 제일 많은 마을로 통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도회지에서 귀향하지 않았으므로 또 새마을운동이 일찍 시작된 마을들의 발전이 현저하여 이 마을은 점차 낙후부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고 뜻을 펴지 못 하고 부락에 남은 젊은이나 도시로 진출치 못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도시에서의 동경과 열등의식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한 것이 이 마을 발전을 늦게 한 세 번째의 원인이었다. 네 번째의 원인은 새마을사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소득증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얻은 마을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경제작물인 참외, 오이, 수박 등의 비닐하우스재배를 시도했으나 기술부족과 기후조건의 불량으로 크게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기술부족이 네 번째 원인이 되어 새마을사업의 추진은 커녕 재래식 영농법을 고집하는 농민들로부터 조소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 3. 기술결연과 지도방향

이 마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요약하면

- 1) 마을면적의 대부분인 산지의 이용이 적고
  - 2) 고산에 의한 일조시간의 짧음과 더불어 기후의 불량으로 오이, 참외 등 경제성있는 작물의 재배가 적당치 못 했으며
  - 3) 노동력의 부족과 기술의 부족
  - 4) 주민상호간의 불화와 협동심 결여로 공동작업 등이 불가능함
  - 5) 새로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음
  - 6) 양반을 고집하는 노인들의 이해가 없었음
- 따라서 이 마을을 지도하는 첫째 방법은 먼저

마을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주민상호간의 거리감을 해소시키고 협동심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마을의 지도자급 노인 10명, 중년층 15명, 청년층 15명, 마을 지도자 및 책임자 6명 등 46명을 영남대학교와 경북새마을기술봉사단의 협조를 얻어 영남대학교 강당에 초청하여 이 마을 출신인 영남대학교 총장님의 격려와 훈시를 들려주고 봉사단의 지도방향과 성공사례를 듣게 하였다. 또 새마을 운동이 잘 진행된 마을을 견학시키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한 결과, 상하 연령층 간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주민들은 모두 재래식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겠다는 결의로 그날로서 새마을 단합대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이번 기회에 낙후부락의 누명을 씻고 스스로 개척하고 협조하며 과학하는 농민으로 일어설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 후로 마을의 공동육묘장 1,000여평, 회관부지 80여평, 새마을광장 및 약초건조실 건립부지 150여평을 마련하고 이제부터는 오늘의 안일보다 내일의 번영을 위해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이들을 해결하여 자립하는 새마을 건설을 이루어 보겠다는 열의에 가득찬 마을이 되었다. 각종 조직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분담 토론하며, 공동작업을 통하여 노동력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가며 노약자와 부녀자 뿐인 곳까지 노동력의 혜택이 미치는 마을로 더욱 굳게 뭉쳐졌다.

두 번째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동력이 적게 들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지도하는 것이었다.

#### ㄱ) 산지 이용한 축산지도

장기계획으로 육성우를 추천하여 소의 노동력 이용과 더불어 자우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육성우는 산지에 산재한 자연초지에 방목하여도 충분히 사양이 가능했으며 질병 및 분만 등에는 새마을기술봉사단 전문위원에게 기술보급을 의뢰하였다. 또 단기계획으로는 비육우의 도입을 권장하여 20두를 입식시키고 사양기술이 익숙해짐에 따라 매년 그 숫자를 증가시킬 계획으로 봉사단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양기술과 사육상의 주의점을 교육해 나가고 있다.

산지에 질 좋은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울무를 비롯한 우량사료작물 증자를 알선하여 사료의 자급자족을 계획하고 재배면적을 확장해 간다면 이 마을에 입식시킬 비육우의 숫자는 호당 5두씩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ㄴ) 산지 및 유희지의 약초재배

장기계획으로는 산지녹화를 겸하여 목재의 이용도 가능하면서 경제적 전망이 밝은 황백과 두충을 선택하여 75년부터 금년까지 황백 1,000株 두충 300株를 계획적으로 심어서 현재 잘 자라고 있으므로 수확기인 1990년에 황백에서 1,000여만원, 두충에서 1,000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이용토록 지도하였다. 또 5년생 모과나무를 호당 평균 10株씩 심게 하여 생산기인 83년부터는 모과에서 얻는 수익이 호당 1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계획으로는 백암산에서 자생하는 자생시호로 보아 시호의 재배적지임이 분명하므로 시호를 비롯하여 적하수오, 오미자 및 구기자와 감초등을 재배토록 지도하였다. 기술의 미비로 첫 해는 실패했으나 영남대학교 육묘장에서 재배하는 방법을 실습시키고 마을에 육묘장을 만들어 건강하게 자란 육묘를 분배해주는 방법을 택한 결과 현재는 재배상의 기술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오미자는 산간지에서 잘 자라며 2년만에 생산하여 약용 및 차용으로 널리 쓰이며 년 1,000株에서 생산되는 수확으로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구기자는 재배법을 개량하여 계단식 밭둑에다 1m정도 자라게 한 후 밭둑 밑으로 자라게 하면 노동력도 걱정 없으며 수확기엔 노약자 및 아동 등 유희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약용 및 양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펙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잼등으로 가공한다면 훌륭한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기자에 의한 연간 수입은 1,000株당 약 150만원이 가능하며 비배관리가 용이하며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되는 적하수오 역시

3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500株씩 수확한다면 연간 200여만원의 수익은 무난하다. 이들의 묘목을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의 공동육묘장을 마을공동으로 운영토록 하며 기술자 5명이 공동으로 재배토록 지도하였다. 이 외에 감초 및 소회향 등을 보급하여 약초재배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도를 해 왔다. 파종육묘 및 비배관리 등을 영남대학교 약초원 현장에서 실습 및 견학시키고 책자를 통하여 지식을 보급하였다.

#### ㄷ) 산지개간 및 과수원 조성

산지 중 낮은 기슭은 개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해태주조와 계약하여 양조용 포도를 7,000평 계약 재배하고 16,000평의 천도복숭아 과수원을 만들었다. 산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북새마을기술봉사단에 의뢰하여 고도에 따른 이용계획 설계를 만들었으며 천수담 및 수리불안전담 등도 점차 과수원 및 포도단지로 바꾸어 나갈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다.

셋째 이 마을 주소득원이었던 쌀생산은 신품종으로 대체했으며 겨울에는 맥작 대신 양파나 마늘을 심어 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재배 기술을 도입시켜 오이, 참외, 수박 등을 축성 내지 반축성으로 생산케 하여 농한기에도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을 지도한다. 따라서 마을의 농고 출신자를 고령군 및 달성군의 비닐하우스재배 전문지역에 파견하여 실습토록 지도하고 있다. 또 전작지에는 자급용 작물대신 작부체계를 새로 수립하여 양파+당근, 마늘+참깨 등으로 경제적 작물을 도입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80년에는 25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자 한다.

#### ㄹ) 잉어 사육

75년도 5,000수의 잉어 치어를 마을 저수지에 방류하였으나 77년 한발에 반 정도 없어서 78년에 다시 1,000수를 제공한 결과 현재 자연생장한 것이 30cm 정도가 되었다. 저수지가 농업용수인 관계로 수확방법이 없으므로 수확방법의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유료낚시터로 개발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수지

주위의 저습담에다 연근을 심고 치어를 사육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㉑) 관광자원 개발

백암산에는 약수터를 비롯하여 자연동굴이 5개소 있으므로 백암산 등산로를 만들고 현저산 약초차와 잉어를 이용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마을의 수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등산로 개척 및 자연동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4. 문제점과 과제

- ㉑. 약초건조실 및 가공처리 시설의 준비
- ㉒. 마을회관 신축 및 상수도 설치
- ㉓. 산지의 고도이용방법 개발과 관광자원의 발굴
- ㉔. 약초가격의 변동에 대처하는 방법 모색
- ㉕. 교통 및 통신시설의 확충

표 1. 가구수와 인구

가 구 수			인 구		
농 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55	2	57	121	146	267
96.5%	3.5%	100%	45.3%	54.7%	100%

표 2. 농경지(畜) 단위:명

수리안전	불 안전	천 수 담	개 간	총 계
55,867	33,305	12,892	5,372	107,436
52%	31%	12%	5%	100%

호당평균: 1,885명=0.63ha

표 3. 농경지(田)

일 반	과 수 원	약 초	상 전	총 계
41,161	15,730	3,499	17,197	77,587
53.6%	20.5%	4.5%	22.4%	100%

호당평균 1,361명=0.45ha

경작호당 총평균=1.08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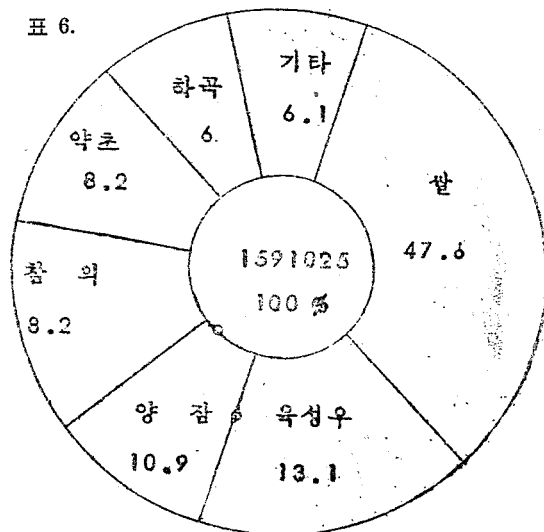
표 4. 농기구 보유 현황

경운기	탈곡(백)기	리어카	분 무 기 (동력)	분 무 기 (수동)
2	10	18	5	25
3.5%	17.5%	31.6%	8.8%	43.9%

표 5. 가 축

육성우	비육우	돼 지	닭	염 소	칠면조
61	20	12	350	24	30

표 6.



IITA(국제 열대농업연구소)

IITA는 발전도상국가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국제농업연구소로서 1967년에 나이지리아 정부의 동의하에 건설이 시작되어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로 들어 갔다. Ford와 록펠러재단이 재정을 담당하고 Nigeria 정부가 1,000정보의 垆地를 제공하여 운영되는 이 연구소에는 현재 5개 작물에 대한 연구실이 있는데 그 분야로서는 Root Crops, Maize, Rice, Pigeon Pea 및 Soybean이 있다. 그 이외에도 이 연구소에는 작부체계 연구실과 세계 각국의 연구생 훈련 및 지역 농민의 영농훈련을 전담하는 기구도 포함되어 있어 그 역할이 대단하다.

이 연구소에는 세계 20개국에서 모인 54명의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 1/6은 아프리카인들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업적들은 대단한 것이어서 작물생산을 질적, 양적면에서 크게 향상시켰으며 수량면에서 특히 Cassava인 경우 평균 3배(300%) 증산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800% 증산을 확인한 곳도 있어 그야말로 녹색혁명을 가져 왔다고 말하는 뿌리작물 육종책임자 한박사는 자못 보람을 찾은 표정을 지었다. 뿌리를 위주로 하는 작물로서는 Cassava 이외 고구마와 Yam이 있는데 이들 역시 2~3배의 증산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農開研消息 Vol. 1 No.3>